



보도시점

5. 20.(수) 11:00

5. 21.(목) 조간

배포

2026. 5. 20.(수) 09:00

농식품부, 고품질 양파 해외시장 확보 및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수출확대 추진

- 대만 등으로 품질 좋은 우리 햇양파 2천톤 이상 수출 적극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산 양파의 생산단수(단위면적당 수확량) 큰 폭 증가로 공급과잉이 지속됨에 따라, 수급조절을 위한 양파 수출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가데이터처 재배면적 : 17,609ha(전년비 0.4%↓, 평년비 1.8%↓), 5월 KREI 중만생종 양파 생산단수 전망치 : 7,186~7,456kg/10a(전년비 1.2~5.0%↑, 평년비 4.9~8.8%↑)

그동안에도 국내산 양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 수출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번 수출지원은 저품위 양파의 밀어내기식 수출에서 벗어나 품질 좋은 우리 햇양파 수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최근 5년간 양파 수출 현황(톤) : ('20) 5,611 → ('21) 10,673 → ('22) 3,584 → ('23) 514 → ('24) 58 → ('25) 467

농식품부는 신속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 경험이 있는 농협, 유통법인에서 확보한上品 양파를 대상으로 선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격 경쟁력 감안 시 주 수출시장은 대만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해외시장 수요가 확인되면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하여 수출물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고품질 양파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양파 수출 경험이 있는 강선욱 함양농협 조합장은 “현재 국내산 양파 가격 감안 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대만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국내산 양파 수급안정을 위해 저장성이 없는 조생종 양파 총 368ha는 시장격리 완료하였고, 중만생종 정부수매비축 확대 등 검토와 함께 소비촉진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지농협 및 유통법인들도 홍수 출하를 당분간 자제하는 등 출하조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장	책임자	과 장	배민식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장성두 (044-201-2236)